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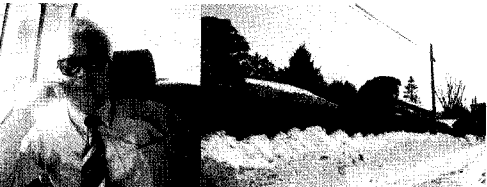
아오모리현의 축제 축제



## 다자이 오사무와 공중화장실



글·사진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99년 2월 눈이 10m나 내린 아오모리현에서 다자이오사무의 생가를 취재할 당시의 필자

▲한겨울 도로위에 쌓여 있는 눈

한 겨울에 아오모리현에 갔다. 일본의 최북단, 북해도와 마주 보고 있는 설국, 아오모리(靑森)공항 밖으로 나오니 떡가루 같은 눈이 평평 쏟아진다. 온 산과 들은 모두 은세계다. 아오모리는 눈과 사과가 유명한 고장이다. 우리가 '아오리' 사과라 부르는 그 사과가 사실은 이 지방의 특산품이다. 가을이면 아오모리는 빨갛게 익은 사과로 장관을 이룬다. 그러나 내가 도착한 때는 한 겨울. 사과의 나라는 눈의 나라로 바뀌었다. 겨우내 내 오는 눈은 무려 10미터. 거리에 1.5미터나 되는 눈이 덮여 있다. 눈길을 달려 아오모리 시내로 들어가니 도로의

중앙선에서 뜨거운 물이 샘솟는다. 눈을 녹여 차량의 동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순전히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1900~1949)의 문학의 산실을 보기 위해서였다. 대학 시절 읽었던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사양〉과 〈인간실격〉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었고 그 작가의 고향에 가보고 싶다는 열망이 드디어 아오모리현 청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다자이 오사무.

일본 최고의 감수성을 가진 작가. 여덟 번의 자살 실패 끝에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작가. 일본소설의 대두라 할 수 있는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쓴 나쓰메 소세키와 〈나생문〉을 쓰고 오늘날 일본문

▶다자이오사무의 생전(生前)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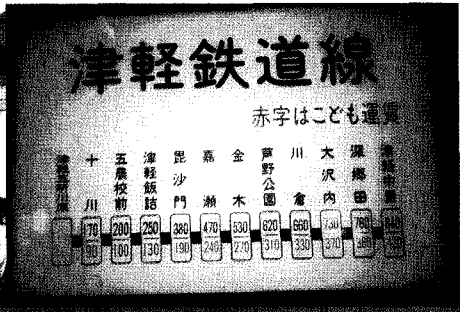




▲협궐열차의 시발역인 고소하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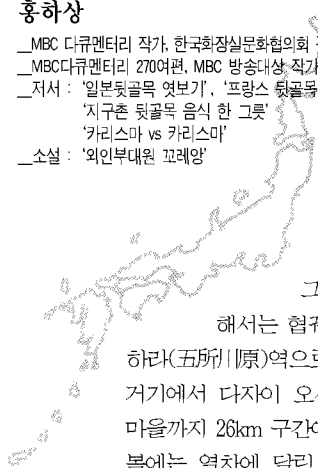
▲쓰가루 협궐열차안의 풍경



▲쓰가루 철도 노선 안내표식

## 홍하상

-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화장실문화협회 전문위원
-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 저서: '일본뒷골목 옛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 소설: '외인부대원 꼬레알'



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되어버린 아쿠다가와 류우노스케의 문학적 전통을 한 몸에 받은 작가. 그 작가의 고향으로 가기 위

해서는 협궐 열차를 타야 한다. 고소가하리(五所川原)역으로 갔다.

거기에서 다자이 오사무의 생가가 있는 가나기 마을까지 26km 구간에 협궐열차가 있다.

봄에는 열차에 달린 방울이 후링후링하며 소리를 낸다고 해서 후링열차, 여름에는 달려드는 곤충 때문에 곤충열차, 겨울에는 조개탄 난로를 땀다해서 스토브열차로 불리는 협궐열차.

협궐열차를 타니 과연 조개탄 난로의 연기가 매캐하다. 그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이 지방의 서민들. 열차는 아오모리의 명불이라는 해발 2700m의 눈 덮힌 아오키산 정상을 뒤로 하고 내뺄기 시작한다.

### 아오키 산이 보이는 곳엔 여자와 쌀이 좋다

이 지방엔 그런 말이있다.

살기 좋다는 얘기이다.

이 눈덮힌 아오모리 지방에 처음 살던 사람들은 아이누 족이었다.

그러던 것이 서기 700년대, 신라에 패한 고구려 유민들 1799명이 만주에서 대량으로 이곳에 건너와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마을이 생겼다.

그러한 역사를 그의 수필에 적은 사람도 바로 다자이 오사무였다.

추운 겨울이라 손님이 많질 않다.

조개탄 난로는 칙칙푹푹 잘도 달린다.

이 열차 안에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

이른바 '열차 백일장' 열차를 탄 사람이 자기의 감상을 적은 시를 내는 것이다. 그 중에 한편이 열차 안에 액자에 넣어서 걸려있다.

###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바르게 앉아서 가던 스토브 열차

1931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다니까, 그 당시에 이 열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은 어머니의 어머니 뻘이 될 것이다. 열차 백일장에서는 두달에 한 번씩 잘 된 작품을 골라 상장과 상품을 준다.

그래서 이 열차는 오늘날 더 재미있다.

이 열차는 만년 적지이다.

손님이 없기 때문이다.

열차 백일장도 아오모리현청이 교육지책으로 연구해낸 아이디어였다.

우리에게도 수인선 협궐열차가 있었다.

소래포구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시장 상인들이 새우젓이나 생선을 실어 날랐다.

그러나 열차가 계속 적자가 나와 당국은 결국 그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철로를 뜯어냈다.

그 열차가 다닐 무렵 소설가 윤후명은 <수인선 협궐열차에 관한 보고서>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단편소설집을 펴냈다.

그 소설에는 수인선 협궐열차를 타고 주말이면 아빠를 만나러 오는 두 딸에 대한 얘기가 실려있다. 이혼한 전처가 데리고 사는 두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방망이질치는 가슴이 있다.

이제 수인선 협궐열차는 사라졌으나 윤후명의 작품 속에는 그것이 살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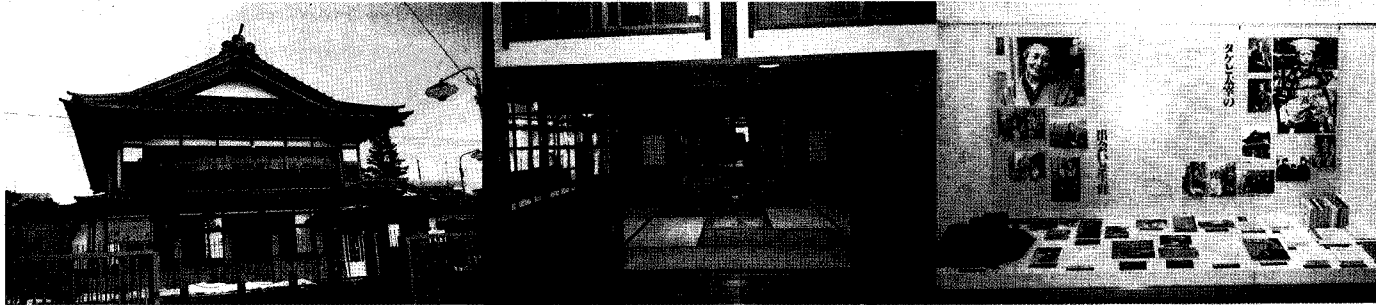
수인선 협궐열차.



▲협궐열차안에 붙어 있는 이달의 백일자에 당선된 시



▲협궐열차안의 난방용 조개탄



▲다자이오사무의 생가(건평 248평의 3층 건물) ▲다자이오사무의 생가의 다다미방. 전경 아오모리현 최고의 부자여서 방이 수십개에 달한다. ▲다자이오사무 기념관의 전시물들.

먼 훗날 우리는 그 소설의 무대였던 그 비릿한 생선냄새와 서민의 땀 냄새가 있었던 그 열차의 모습을 그리워할 지 모른다. 그리고 그 때쯤이면 우리는 보존했어야 할 문화유산을 너무 쉽게 포기했었다는 아쉬움에 긴 한숨을 쉬게 될지도 모른다. 아오모리의 협궤열차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어떡 하든지 그 열차를 지켜보려는 시민과 당국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나가고 있다. 드디어 가나기(金木)역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의 시골 간이역이나 다름없는 지붕이 낮은 낡은 역사. 거기서 차를 달려 다자이 오사무의 생가에 도착했다. 사양관(斜陽館) 생가의 이마에는 그런 현판이 걸려있다. 다자이 오사무의 대표작인 사양(斜陽)을 기념하여 건 현판이다. 사양관은 고대광실 기와집이다. 지상 3층, 건평 248평의 우람한 목조기와집이다. 다자이가 살았던 시절, 이 기와집은 10리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컸다. 눈을 털고 생가 안으로 들어선다. 유치원만큼이나 큰 마루방이 보이고, 그 마루를 둘러싸고 장짓문이 방이 여러개 보인다. 방은 30개나 된다. 여기에 다자이의 일가족과 하인 30여명이 살았다. 다자이 오사무의 아버지는 아오모리 최대의 갑

부였다. 논과 밭이 수백만평에 달했고, 가나기 은행도 그의 소유였다. 다자이의 큰형은 훗날 초대 아오모리 도지사가 되었다. 그도 일본 최고의 대학인 동경대학 불문과에 진학했었다. 그 다자이 문학의 산실이 여기인 것이다. 다섯 살 시절 그가 놀았던 2층 계단의 마루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옛날 그대로이다. 그는 이 집에서 유모 다케의 손에 컸다. 자식을 여섯이나 낳은 어머니는 병약해서 그를 돌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공사다망 했으므로 일 굴 보기조차 힘들었다. 부모의 사랑이 그리웠을 것이다. 다자이는 유모 다케를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그의 품속에서 자랐다. 그러나 다케는 어느 날 시집을 가버린다. 고도마리라고 하는 작은 포구의 철물점 주인의 아내가 된 것이다. 그날 그는 '다케 없어, 다케 없어' 하며 소리쳐 울었다. 그리고 그 20년 후 청년 다자이는 다케를 찾아 나선다. 그때 다자이와 다케가 만났던 모습이 고도마리에 가면 동상으로 남아있다. 다자이의 생가에서 나와 그가 어릴 적 다녔다는 절과 신사, 그가 다닌 중학교, 고등학교, 그의 하숙집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고도마리 포구로 가서 다케와 다자이의 만남을 기념해서 세운 동상도 보았다.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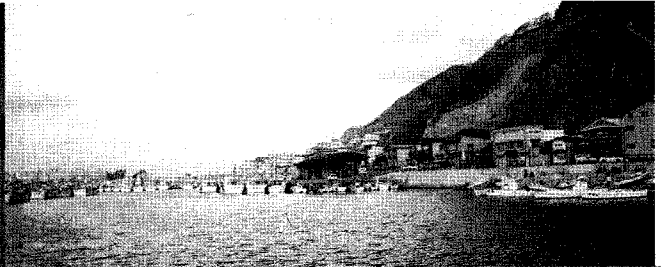


◀고도마리 포구마을에 있는 다자이오사무와 유모 다케의 만남을 기념해서 세워진 동상. 20년만의 만남이었다.



▲아오모리현의 특산물 나전칠기

▲아오모리현의 국민숙사 오의리산장의 저녁식사를 깔끔하고 정갈한 1인용 독상이다



▲고도마리 포구의 전경 (새벽 8시)



▲필자를 안내한 아오모리현청의 문화담당 과장인 오카하라씨

나를 초칭했던 아오모리현청의 문화 담당 과장인 오카하라씨가 저녁식사를 하자고 한다.

그와 만난 곳은 아지가사와 프린스 호텔의 레스토랑 이 지방에서는 제일 좋은 18층 짜리 호텔이다. 레스토랑에 가니 오카하라씨가 기다리고 있다. 음식이 나왔다. 갓은 생선회부터 등심스테이크, 샐러드, 국과 밥까지 진수성찬으로 한상 잘 차려놓았다. 오카하라씨가 식단이 마음에 드느냐고 묻는다. 고개를 저었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다. 그가 놀리면서 뭐가 부족한가를 물었다. '다자이가 좋아했다는 도루묵 찌개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

오카하라 과장이 호텔의 주방장을 불렀다. 주방장은 도루묵 같은 싸구려 생선요리는 1류 호텔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카하라씨가 자동차를 준비시켰다. 오카하라씨와 주방장, 나 셋이서 눈길을 40분 달려 아지가사와 수산시장으로 갔다. 거기서 도루묵을 한판 샀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 그걸 요리했다. 단 25분만에 도루묵 찌개가 나왔다. 오카하라씨가 맛을 보라고 권한다. 순갈로 국물을 떠먹고, 도루묵의 살 한 점을 뜯

었다. 간이 딱 맞는다. 국물 맛이 더도 덜도 아니게 깔끔하다. 생선의 살도 먹기 좋게 잘 익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자, 오카하라씨가 건배를 외쳤다. 그와 맥주와 청주를 마시면서 다자이의 문학과 예술, 인생에 대해 얘기했다. 그가 말했다. 사실은 다자이 오시무가 고등학교 선배여서 그를 존경한다고.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의 아오모리.

온통 세상이 눈으로 덮힌 설국, 아오모리.

다자이가 자주 찾았다는 신사 앞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소변을 보면서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점심의 소비식당에서도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추워서인가, 자주 오줌이 마려왔다.

설국 아오모리의 신사 앞, 공중화장실.

하루에 다섯 명도 올 것 같지 않은 공중화장실이었지만, 겨울의 동파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고, 청결하게 관리도 잘하고 있었다.

비록 열 명도 오지 않을 것 같은 한적한 공원화장실이었지만, 그들은 세심했다.

설국, 아오모리는 경치도 좋고, 그 문화도 좋았지만, 화장실마저 청결해서 해피엔딩이었다.

이 겨울,

눈이 또 오면 다시 아오모리에 가고 싶다.



▲네부타 축제에 등장하는 등(燈) 등(燈)에 그려진 인물들은 다분히 고구려의 무사 같다



▲히로사키 신사(神社). 한겨울 눈이 녹아 고드름이 달렸다.



▲히로사키 신사(神社) 앞의 공중화장실. 깔끔·단정한 일본식분위기의 화장실



◀히로사키 시네의 메밀국수 식당 화장실. 번기가 구식이지만 꽃을 꽂는 등 나름대로 소박하게 최선을 다했다